

## 힐러리 맨틀의 『울프 홀』에 나타난 튜더왕조 시대의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관

박 선 화

**Park, Sun-hwa.** “Thomas Cromwell’s Religion at the time of the Tudor Dynasty in Hilary Mantel’s *Wolf Hall*.” *Literature and Religion* 25.3 (2020): 1-23.

Print. [논문투고시 저자관련정보 모두 삭제]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omas Cromwell’s religious experiences as portrayed in Hilary Mantel’s *Wolf Hall* by following the formation of the Church of England. In *Wolf Hall*, Mantel’s Cromwell helps Henry VIII and Anne Boleyn to marry, and plays a vital role in revising the canon law with the Supremacy Acts. He is a prominent and resolute politician who becomes Henry’s adviser, Master of the Rolls, and even Vicegerent in Spirituals, which is a new role that Cromwell is appointed to by Henry VIII. Her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his involvement in political revolutions and religious reformations is not for the Tudor dynasty, but for his faith and personal revenge. That is, Mantel’s Cromwell is a religious man who believes in his own god, belonging to neither the Catholic Church nor the Church of England. [8.8pt, 14줄~15줄]

**Keywords:** Hilary Mantel, *Wolf Hall*, Church of England, Thomas Cromwell, Religious Experience [주제어:5개]

Notes on Contributor:

Sun-hwa Park is Associate Professor of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Korea. She has been working on British novels, in particular, Doris Lessing and is interested in Booker Prize-winning novels and their film adaptations, and a comparative study of literature and religion.

Email: shpark@kku.ac.kr

## 1. 들어가며: 『울프 홀』과 토머스 크롬웰[본문:10pt]

영국 튜더왕조의 헨리 8세(Henry VIII)와 앤 불린(Anne Boleyn)의 관계를 주요 모티프로 다룬 힐러리 맨틀(Hilary Mantel, 1952- )의 『울프 홀』(*Wolf Hall*)<sup>1)</sup>과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Bring Up the Bodies*)은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부커상을 수상한다. 여기에 2020년 부커상 후보에 오른 『거울과 빛』(*The Mirror and The Light*)이 추가되어 구성된 맨틀의 삼부작은 앤 불린과 헨리 8세와의 결혼 전과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 삼부작의 서사는 토머스 크롬웰(Thomas Cromwell)의 관점으로 전개된다. 흥미롭게도, 맨틀의 삼부작은 앤 불린의 흥망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토머스 크롬웰이 지위와 권력 상승을 누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설 그리고 1540년 처형당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세 번째 소설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토머스 크롬웰의 흥망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울프 홀』에서 헨리 8세와 얽힌 그리 ‘낮설지 않은’ 역사와 그 언저리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는 이 역사와 관련한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된다. 여기서 독자는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연극, 뮤지컬로 너무나 여러 번 재탕되고 [. . .] 뻔히 알고 있는 이 낡은 소재가 [. . .] 이렇게 흥미진진하”(김선형 536)게 읽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역사소설은 이미 주요 사건, 즉 플롯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울프 홀』의 소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라는 태생적 한계”(하운숙 617)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성’과 ‘대중성’을 지닌 “상업적 본격문학”(Todd 91)으로서 부커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토머스 크롬웰이란 인물 설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 맨틀은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의 「작가의 말」(“Author’s Note”)에서 “앤 불린이나 헨리 8세가 아닌, 토머스 크롬웰의 경력”(484)에 집중하고자 했음을 언급하고서 이 인물에 대한 전기적 연구가 더 필

1) Hilary Mantel, *Wolf Hall* (London: Fourth Estate, 2010). 이후 이 소설의 인용문은 괄호를 사용하여 쪽수로만 표기함. 또한 이 소설의 「등장인물」(“Cast of Characters”)에 나열되어 있듯이, 토머스 이름을 지닌 인물은 11명 등장하기 때문에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본 논문에서 『울프 홀』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풀 네임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단, 토머스 울지(Thomas Wolsey) 추기경의 경우 직함으로 구분이 가능하기에 첫 번째 언급 이후 울지 추기경으로 표기한다.

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맨틀은 삼부작에서 토머스 크롬웰을 ‘그’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의식을 통해 튜더왕조의 역사를 ‘현재형’으로 재현하여 이러한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현 시대에서도 재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맨틀이 앤 불린과 헨리 8세의 역사에서 미비한 존재였던 그, 즉 토머스 크롬웰을 역사 언저리에 묻혀 있는 이야기를 현재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삼인칭 서술자로 부활시킴으로써 실현된다. 그가 전달하는 과거는 반드시 과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머스 크롬웰의 서술자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진면목이 드러난다.

1500년 런던 근교 퍼트니(Putney)에서 아버지인 대장장이 월터 크롬웰(Walter Cromwell)에게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은 후 구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해 이탈리아로 피신한 토머스 크롬웰은 『울프 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527년에 런던의 오스틴 프라이어스(Austin Friars) 대저택의 주인 이자 울지 추기경의 비서로 등장한다. 마흔이 조금 넘은 그는 “법정이나 부두 상황에 두루 정통하고, 주교 관저나 여관 마당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이며,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매를 훈련시킬 수 있으며, 지도를 그릴 수 있고, [...] 배심원을 포섭할 줄 알고, 옛 작가의 멋진 문장을 인용할 줄 알며, 시를 이탈리아어로 읊을 줄 아는 자”(31)로 등장한다. 그는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모두 암기하고 있어 추기경의 비서로 적임자이며 수도원장이 갈팡질팡하며 헤맬 때에도 언제든지 성경문구를 시의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그는 1535년에 이르기까지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의 자문관, 주얼하우스장관(Jewel House), 국정비서관(Master Secretary), 기록보관장관(Master of the Rolls)의 임무를 수행한다. 심지어 국왕의 성직관리관(Vicegerent in Spirituals)으로 임명받아 “수도원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개혁하고, 필요한 경우 폐쇄할 수 있는 권한”(608)을 부여받는다. 이에 의해, 튜더왕조의 귀족들로부터 “비천한 대장장이 아들”(187)로 멸시 당하던 그가 잉글랜드의 가톨릭교회 해체를 주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오르는 과정을 다룬 『울프 홀』은 “토머스 크롬웰에 관한 역사소설”(Snow 26)로 간주되기도 한다.

도미니크 그린(Dominic Green)이 주장하듯이, 『울프 홀』은 잉글랜드가 “가톨릭교회와 중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국성공회 성립과 근대국가 형성”(27)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Reformation) 분위기에서 성직자와 귀족의 권리와 재산 재편성과 교회 개혁은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분명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정치적인 혁명이다. 그래서 토머스 크롬웰이 주관하는 가톨릭교회 해체 작업을 고찰하는 과정에는, 가톨릭교회와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종교적 의지가 명백하게 제시되기도 하지만, 『울프 홀』의 여기저기에 투영된 신분상승을 노리는 그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나거나 엿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의 종교적 개혁과 정치적 혁명의 야망이 잉글랜드의 튜더왕조를 위한 대의명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난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에서 짝을 띄우고 확대되어 간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튜더왕조 시대의 영국성공회 형성에 일조한 토머스 크롬웰의 행적을 그의 개인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맨틀은 토머스 크롬웰을 가톨릭과 단교하고 수도원을 해체하며 영국성공회의 성립을 주도하는 무자비한 정척 집행자로 그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실한 권력자이자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로시터 246)으로 묘사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토머스 크롬웰의 양가적 입장은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개인적인 목적에서도 부각된다. 그는 울지 추기경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고수하고 울지 추기경을 모욕한 인물들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교황과 가톨릭교회를 따르며 국왕의 수장령(Acts of Supremacy)을 부인하는 동료 성직자를 처형하고, 심지어 영국성공회 확립에 기여한 앤 불린의 참수형을 주도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로마가톨릭과 영국성공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즉 두 종교의 “경계에 선 인물”(Funk 95)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토머스 크롬웰은 튜더 궁정에서 아슬아슬한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신에게 의존하는 종교적 믿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머스 크롬웰은 종교의 주관적 믿음을 강조하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주장에 비추어 “종교적”(religious)(90) 인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 울지 추기경의 비서로 일할 때는 가톨릭을 위해 그리고 헨리 8세를 위해 일하는 경우 영국성공회를 위해 봉사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종교에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머스 크롬웰은 추상적인 신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인간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제임스의 종교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서 먼저 맨틀이 고안한 토머스 크롬웰을 살펴보면 『울프 홀』이 당대 사회와 연관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 개인의 역사를 다루는 소설임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서 영국성공회 형성에 이바지하는 과정에서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적 경험이 발현되는 개인적 사건들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역사적 인물에 기반하고 있지만 맨틀의 크롬웰은 작가의 종교적 신념이 투영된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한 존재임을 부각시킬 것이다.

## II. 맨틀의 크롬웰: 개인역사 (다시)쓰기

토머스 크롬웰은 울지 추기경이 아들 토머스 윈터(Thomas Winter)와 딸 도로시아(Dorothea)라는 치부를 지녔지만 “인자하고, 일처리를 자신 있게 하면서도 부드러운 존재이고, 아주 공정하고 기민하여 대단한 분별력을 지닌”(240) 존재로 여기며 아버지 같은 존재로 존경한다. 그런데 1529년 국왕 헨리 8세와 캐서린(Katherine of Aragon) 왕비와의 혼인무효선언(annulment)을 추진하고 프랑스 공주와 혼인을 계획하던 울지 추기경은 하루아침에 “국왕경시죄”(praemunire)(59)로 기소되고 만다. 이때 토머스 크롬웰은 “모든 역사의 뒤편에 있는 또 하나의 역사”(66)를 언급하며 1521년 과거를 회상한다.

아서 왕의 축복받은 후손인 잉글랜드의 아서 왕자는 1486년 제1대 튜더 국왕 헨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서는 아라곤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했으며 열다섯 살에 죽어 우스터 성당에 묻혔다. 죽지 않았다면 잉글랜드의 국왕이 되었을 것이다. 아서의 동생 헨리는 아마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추기경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한 여자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기경은 노획공작과 서퍽공작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들이닥치기 몇 년 전부터 이 여자에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파멸이 자신을 덮치기 전부터 이 여자의 살아온 내력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다.

[인용문:9pt, 여백: 왼쪽:20, 오른쪽:20]

His[Arthur's] blessed descendant, Prince Arthur of England, was born in the year 1486, eldest son of Henry, the first Tudor king. This Arthur married Katherine the princess of Aragon, died at fifteen and was buried in Worcester Cathedral. If he were alive now, he would be King of England. His younger brother Henry would likely be Archbishop of Canterbury, and would not be in pursuit of a woman of whom the cardinal hears nothing good: a woman to whom, several years before the dukes[Norfolk and Suffolk] walk in to despoil him, he will need to turn his attention; whose history, before ruin seizes him, he will need to comprehend. (66)

국왕 다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울지 추기경은 위의 “한 여자” 때문에 외교관 토머스 불린을 요크(York) 공으로 불러들인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공을 거치고 잉글랜드로 귀국한 앤 불린, 즉 그 “여자”가 가장무도회에 등장한 후 해리 퍼시(Harry Percy)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예정되어 있던 버틀러(Butler)가문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울지 추기경은 심지어 토머스 불린에게 “장사꾼 집안”이라고 모욕을 주기까지 한다. 면담을 마치고 방을 나가던 토머스 불린은 “푸주한 집 아들”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더니 울지 추기경의 비서이자 변호사인 토머스 크롬웰에게 “푸주한 집 개”(70)라고 비웃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린가는 1527년 앤 불린이 국왕의 사랑을 독차지하자마자 울지 추기경의 몰락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울지 추기경은 해리 퍼시에게 체포된 뒤 1930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한다. 토머스 크롬웰은 앤 불린이 청하여 울지 추기경을 체포한 “해리 퍼시에게 직접 복수하겠다”(261)고 다짐하고, 후에 해리 퍼시 뿐 아니라 울지 추기경에게 파멸을 안겨준 앤 불린을 간음(adultery) 죄목으로 참수 당하게 함으로써 복수한다.

토머스 불린이 당한 모욕을 들은 노퍽(Norfolk)공작은 가문의 미래를 떠안고 있는 조카 앤 불린의 요청에 따라 울지 추기경의 대법관 직위를 박탈하고 요크 공을 비우라고 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노퍽공작은 국왕에게 울지 추기경의 사면을 요청하는 토머스 크롬웰에게 “이 천한 것, 지옥에서 떨어진 별 볼일 없는 놈, 창녀에서 난 놈, 악으로 똥똥 뭉친 놈”(187)이라고 악담을 퍼붓는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토머스 크롬웰은 해리 퍼시가 앤 불린과의 혼인서약을 주장하

여 그녀와 국왕의 혼인을 무효화시키려 할 때 그녀가 국왕과 혼인을 치를 수 있도록 적법한 법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노퍽공작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후에 그녀가 침수 판결을 받을 때 토머스 크롬웰은 노퍽공작에게 판결문을 읽도록 해서 참관인들로부터 가족을 팔아넘긴 파렴치한이라는 비난을 받게 하여 자신을 무시한 죄에 대해 은밀한 복수를 펼친다.

울지 추기경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승격한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 국왕 자문위원회가 울지 추기경에 대한 죄목으로 준비한 44개 조항에 하나를 추가한다. 자문위원회에 동석했던 토머스 크롬웰은 “울지 추기경이 프랑스 전염병에 걸려 돌아와서 국왕에게 귓속말을 시도하여 병을 전염시키려 한 죄를 저질렀다”(160)고 언급한 토머스 모어의 주장을 기억한다. 후에 국왕과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을 반대하고 국왕이 영국성공회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죄로 런던탑에 갇힌 토머스 모어에게 토머스 크롬웰은 “교황절대주의자”(papist)(632)라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언함으로써 복수한다.

토머스 모어에 대한 토머스 크롬웰의 복수 이면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 일곱 살 토머스 크롬웰은 모턴(Morton) 추기경의 시동으로 일하던 열 네 살의 토머스 모어를 만난다. 당시 모턴 추기경의 요리사로 일하는 삼촌 밑에서 요리를 보조하고 냄비 닦는 일을 하던 토머스 크롬웰은 옥스퍼드에 가기로 되어 있고 학식과 재치를 갖춘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라는 칭송을 받는 토머스 모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시당하고 만다. 마당에서 공을 차던 중 가끔 건물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지만 그는 토머스 크롬웰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토머스 모어는 맨틀이 언급한 “상대방을 무시한 용서할 수 없는 죄”(Snow 28)를 저지르고 만다. 이 기억은 국왕 자문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토머스 모어를 다시 만났을 때 상기되고, 후에 토머스 크롬웰은 국왕 반역죄로 교수형을 당하는 토머스 모어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기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가 다가가는 것조차 보지 못했지요”(640)라고 되뇌며 의미심장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모든 역사의 뒤편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66)는 언급은 『울프 홀』과 맨틀의 전기적 배경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맨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은 국왕과 앤 불린의 관계를 둘러싼 “불행한 결혼, 이혼, 불가

능한 이혼, 무력한 아이”(Snow 26)라는 『울프 홀』의 주요 소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 더비셔(Derbyshire)의 헤드필드(Hadfield)에 있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맨틀은 방적공장에 다니던 어머니와 판매인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실패에 이른 여섯 살에 충격적 경험과 마주한다. 종교적 이유로 이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남자 친구 잭 맨틀(Jack Mantel)과 이층 침실에서 지내고, 아버지는 딸 맨틀과 아래층에서 기거하기 시작한다. 어떤 힘이나 지위를 지니지 못한 무력한 맨틀은 어머니가 미사 참석을 그만두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마을 사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받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다. 이때부터 맨틀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동시에 이상한 질문과 놀림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 “존재론적 불안과 굴욕이 뒤섞인 자존심”(Snow 27)을 지키기 위해 고전분투 한다. 맨틀은 무시하는 “용서할 수 없는 죄”(Snow 28)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점 투성인 어머니를 옹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맨틀은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는 토머스 크롬웰이란 인물을 창조하기에 이른 것인지도 모른다. 대중의 의견과 분노에 무관심하면서 앤 불린과 혼인하고자 하는 국왕의 고집과 번덕을 옹호하는 토머스 크롬웰은 부정을 저지른 어머니를 옹호하고자 하던 맨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머스 크롬웰은 맨틀이 그리고자 한 상상의 인물이자 동시에 그녀를 대변하는 “또 다른 자아”(Snow 27)이다.

열한 살에 맨틀은 어머니와 잭과 함께 체셔(Cheshire)로 이사하면서 아버지와 영원히 결별한다. 자서전적 회고록 『그 유령을 놓아주기』(*Giving Up the Ghost*)에서 언급하듯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한 삶에 대한 경멸”(Snow 30)은 그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혈질의 계부 잭과 어머니의 다툼과 불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계부의 냉대를 겪은 경험으로 인해 그녀에게 가정은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장소이자 불안한 곳”(Knox 314)이어서 2014년 런던의 듀런츠(Durrants)호텔에서 진행된 독회 모임에서 고백하기도 하듯이 영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호주”(Mantel, “Sanity” 27)로의 이주를 꿈꾸기도 한다. 또한 그녀는, 가브리엘 아모스(Gabriele Amorth)의 주장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영적 믿음을 상실”(Snow 30)하고 개신교인 잭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면서 신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만다. 인터뷰와 회고록에



서도 밝히듯이, 그녀는 책이 가족과 합류한 이후 “보이지 않는 사악한 존재”(Gardiner 43)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특히 일곱 또는 여덟 살 때 뒷마당에서 마주한 존재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종교관을 와해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냄새도 나지 않는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의 움직임, 그 불손한 움직임은 내 속을 울렁거리게 한다.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뒷마당에 얼떨거리는 그 존재의 부피를 느낄 수 있다. 크기는 두 살 꼬마의 키 높이이다.

There is nothing to see. There is nothing to smell. There is nothing to hear. But its motion, its insolent shift, makes my stomach heave. I can sense at the periphery, the limit of all my senses the dimensions of the creature. It is as high as a child of two. (MacFarquhar)

맨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사악한” 존재라고, 또 자신을 “오염시키는 존재”로서 신의 은총을 앗아가 버렸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보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 존재의 목적은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선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은 존재를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신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며 “신이 생각한 것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MacFarquhar)을 증명한 셈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녀는 어머니와 책을 비난하는 대신,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 태어난 자신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자신은 “신을 비난”(Snow 31)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맨틀은 「온전한 정신, 광기 그리고 가족」(“Sanity, Madness and the Family”)이라는 제목의 독회 발표 자료에서 자신을 책의 친딸인 것처럼 행세한 어머니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낀 사실을 토로한다. 이러한 심적 부담은 열아홉 살에 윈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통증으로 나타나 진정제 투여를 받지만 해결되지 않자 중국에 “정신병”(29)이란 진단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녀는 어린 시절

부터 이해 불가한 질병을 앓아 드러눕곤 했는데 가정 주치의는 이런 그녀를 “항상 잔병치레하는 소녀”(Little Miss Neverwell)(Lodge 43)로 호칭하며 귀여운 피병을 부리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부커상 수상 후 오랫동안 질병을 앓은 이력에 관한 인터뷰에서 밝히듯이, 그녀는 자신의 질병을 가톨릭 가정의 분위기에서 마치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십자가”(Gardiner 44)와 같은 징표로 받아들이며 살았다고 답함으로써 이 질병이 종교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 주장을 감안하면, “정신치료와 약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통찰케 하는 글쓰기”(Mantle, “Sanity” 31)를 통해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질병을 극복한 그녀의 삶에서 소설과 종교적 연관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녀의 소설과 종교관이 긴밀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울프 홀』의 서술자이자 주인공 맨틀의 크롬웰은 맨틀이 “어린 시절의 질병과 악몽에 대한 치유”(Snow 27)로 탄생시킨 인물이라는 주장은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맨틀의 크롬웰은 국왕에 충성하고 울지 추기경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동시에 적에게는 계획적이고 과감하게 복수하며,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 충실한 남편, 예술 옹호자이자, “인본주의자”(Thomas 27)로서 가난한 자를 친구로 대하고, 학대받은 자를 품어준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와 달리, 맨틀의 크롬웰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상상하던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완벽히 재현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으로서 맨틀의 크롬웰은 그녀의 신에 대한 믿음을 수정하는 대변자로도 볼 수 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인을 혐오”(218)하는 자이며 심지어 “영국성공회의 이단자”(369)로 간주되면서 무신론자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그는 개인적 사건들을 통해 그가 믿고 따르는 자신만의 종교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서 맨틀의 크롬웰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맨틀의 종교관이 투영된 인물로 상정하고서, 주장력을 반대하는 토머스 모어의 심문에서 개진하는 그의 종교관을 조명할 것이다.

### III. 크롬웰의 종교적 경험들

1932년 봄 토머스 크롬웰은 오스틴 프라이어스 집을 방문한 대법관 토머스 모어를 맞이한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교 왕국의 성벽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려는 거요?”  
 “잉글랜드 국왕은 이교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지요.”  
 “당신이 이교도가 아니라고? 당신이 루터나 독일인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지는 잘 모르겠소. 혹은 외국을 떠돌면서 알게 된 어떤 이교도 신이나 당신  
 이 직접 만든 어떤 영국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건지도 모르죠. 아마 당신의  
 신앙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가격만 맞다면 술탄을 위해서도  
 일할 거잖아요.”

“Why would you want to make another breach in the walls of Christendom?”  
 “The King of England is not an infidel. Nor am I.”  
 “Are you not? I hardly know whether you pray to the god of Luther and the  
 Germans, or some heathen god you met with on your travels, or some  
 English deity of your own invention. Perhaps your faith is for purchase. You  
 would serve the Sultan if the price is right.” (351-52)

모든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믿는 토머스 모어는 국왕의 힘을 등에 업고 토머스 크롬웰이 자문관으로서 “이교도”와 협상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토머스 모어의 경고를 들은 뒤 토머스 크롬웰은 신앙 때문에 어느 할머니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던 아홉 살 기억을 떠올린다. 롤라드파(Loller) 소속의 “이교도”라는 이유로 런던의 한 광장에서 화형당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는데, 가톨릭을 신봉하는 한 구경꾼은 “이런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다. 화형장에 장작을 갖다놓은 사람은 누구든지 연옥에서 사십 일 먼저 풀려날 수 있지”(353)라고 하며 그에게 한 눈 팔지 말고 똑똑히 바라보라고 재촉한다. 이 시점에서 할머니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배풀지 않는 구경꾼들이 떠나고 난 뒤 그가 할머니를 위해 남모

르게 “입술을 달짝이며 기도를 드린”(356) 기억이 떠오른 것은 토머스 모어가 자신을 “이교도”라고 부른 것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이었을 것이다.

토머스 크롬웰은 토머스 모어에게 “이교도”라는 일말의 책도 잡히지 않기 위해 가족에게 “정통 신앙을 독실하게 지키라”(101)고 단속하곤 한다. 토머스 모어는 루터를 “독일 똥”이라고, 루터의 입은 “이교도 세계의 향문”과 같다고 표현하며, 특히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의 영어 번역본 성경은 “악의로 가득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121) 자료라고 비난한다. 당시 라틴어 성경 이외의 성경을 금지하는 분위기에서 영어 번역본 성경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죄로 토머스 모어는 토머스 히튼(Thomas Hitton)사제, 리틀 빌니(Little Bilney)사제, 제임스 베인햄(James Bainham)변호사, 베이필드(Bayfield)수도사, 그리고 종교와 무관한 상인 존 투기스베리(John Tewkesbury)를 화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동조나 비난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토머스 크롬웰은 런던 북쪽 스미스필드(Smithfield)의 공개처형장의 하늘이 사람의 재로 자욱하게 덮이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묘사한다.

나아가 토머스 크롬웰은 담담한 목소리로 토머스 모어와 디크 퍼서(Dick Purser)의 얽힌 관계를 들려준다. 디크 퍼서의 아버지는 토머스 모어에 의해 고문당하고 런던탑에 갇힌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죽고 만다. 토머스 모어는 고아가 된 후 비행을 저지르는 어린 디크 퍼서를 돌보기를 자청하는 데, 디크 퍼서가 독일어 책을 지니고 있으며 “성찬식 밀떡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348)고 말한 대가로 채찍질을 가한다. 토머스 모어는 디크 퍼서를 “이교도”라며 발가벗긴 상태에서 때렸고, 그의 부인과 딸들과 하인들은 나체의 어린 소년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킬킬거리고 웃는다. 이와 달리, 토머스 크롬웰은 학대받는 디크 퍼서를 집으로 데려와 제대로 갖춘 제복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경비견 관리인으로 일하게 하고, 그가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따뜻한 말을 건네며 보살핀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따르겠다는 맹세와 한편 일말의 동정심도 베풀지 않은 토머스 모어가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디크 퍼서의 눈물 어린 요청을 들으며, 토머스 크롬웰은 “베푸는 마음이 눈곱만큼만 있어도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다”(640)고 깨닫는다.

이 지점에 이르면, 토머스 크롬웰의 행적에서 개인은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

하고 개인에게 도움을 베푸는 구체적인 종교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제임스의 주장이 발현됨을 볼 수 있다. 1901년부터 1902년에 이르는 에든버러대학교의 초청 강연에서 다룬 원고를 엮어 묶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에서 제임스는 특정 종교의 교리신학과 교회 중심주의를 배격한다. 그래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은 종교 교리나 본질을 다룬 내용이 아닌, 개인의 신앙고백과 작품 그리고 자서전에 기록된 “종교적” 경험들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된 “개인적(personal) 종교”(31)에 관한 연구서이다. 여기에서 제임스는 기성 종교와 “종교적” 경험을 구분하고, 기성 종교가 증시하는 제도, 관념, 또는 상징과 같은 요소들은 “종교적”(90)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제도, 관념, 상징을 증시하는 기성 종교와 다른 종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종교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제임스에게는 종교적인 실천적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제임스의 종교관은 모든 개인이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종교적 삶은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71)는 점을 강조한다. 제임스에게 종교란 형식을 초월한 개인과 신과의 영적 교류이며, 그래서 제임스가 주장하는 종교적 인간은 “개인이 신과의 성스러운 관계맺음에서 느끼는 감정, 행위, 경험”(31)에 주목한다.<sup>2)</sup> 따라서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양심, 도덕성, 친절, 자선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요소가 “인간 개인의 총체적 반응이나 감정”(35)과 연관된다고 본다. 이러한 제임스의 실천적 종교관에 비추어 보자면,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에서 경험한 두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울프 홀』의 토머스 크롬웰이 토머스 모어의 폭력으로부터 디 퍼서를 구해주고 친절과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그의 “종교적” 인간의 면모를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사실, 일말의 동정심도 베풀지 않는 토머스 모어와 달리, 토머스 크롬웰은 1528년 런던에 유행한 발한병(sweat disease)로 죽은 딸이 애독한 기도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요리사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공간을 덜어

2) 제임스의 종교적 인간의 양상을 반영한 영소설 분석에 대한 다른 논문으로 줄고 「『라이프 오브 파이』의 소설과 영화에 재현된 다종교」와 「윌리엄 제임스의 성인다움과 개인의 체험적 신앙: 그래엄 그린의 『권력과 영광』을 중심으로」 참조.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 줄 알며, 주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한병으로 죽은 아내에 대한 충절을 지켜 도덕성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구타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두 딸을 키우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난한 헬렌 바르(Helen Barre)가 수녀원 세탁실에서 딸이 있다는 이유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하는 친절과 자선을 베푼다.

여기서 토머스 크롬웰은 동조나 비판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자유간접 화법”(Richard 23)을 통해 “교회의 위선적인 자선”(420) 행위와 성직자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의식에만 치중하여 사람을 학대하는”(421) 성직자들을 묘사한다.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토머스 크롬웰은 토머스 모어의 위선을 드러내어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로, 토머스 크롬웰은 담담한 목소리로 “토머스 모어의 부친은 네 번이나 결혼”했고 토머스 모어 또한 “육정에 눈이 멀어 사제가 되려던 목적을 포기하고 두 번이나 결혼한”(123) 것을 언급한다. 또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부인에게 억지로 설교를 모두 외우도록 강요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자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라는 장인의 제안을 수용한 적이 있다는 토머스 모어의 일화를 들려주기까지 한다. 토머스 모어는 부인 없이 살 수 없다면 본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되, 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인물이다. 이러한 토머스 모어의 생각은 당시 “여자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는 “자손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대상이기에 출산 시 사망해도 애도해선 안 된다”(124)는 분위기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을 반영한다. 반면, 토머스 크롬웰은 “남자가 이해한다면 여자도 이해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처럼 걱정도 하고, 여자의 재능이나 미움이나 사랑도 모두 남자의 것과 같다”(401)고 보는 이탈리아 외교관이자 작가인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Baldassare Castiglione)의 주장에 동조하고, 또 딸의 교육을 위한 가정교사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는 교육열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직자보다 냄비 닮은 소년이 훨씬 더 성스러운 존재라는 틴들의 주장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토머스 크롬웰이 보기에, 토머스 모어는 육백 명 이상의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다니는 추기경이나 재산 축적에 열을 올리는 성직자와 같은 위선자일 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토

머스 모어는 “정통 가톨릭교도로서 자칭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맨틀이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확립된 권위의 대변자”(Snow 28)이다. 맨틀은 토머스 크롬웰의 관점을 통해 토머스 모어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문을 일삼는 가학자이자 여성을 혐오하는 남편으로서 거짓 신앙과 위선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1932년 봄으로 돌아가서 토머스 모어가 대법관일 당시 토머스 크롬웰과 국왕을 “이교도”로 잠정 규명한 사건을 살펴보면, 국왕의 수장령을 공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담당한 토머스 크롬웰에게 “당신의 신앙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352)이라는 토머스 모어의 언급에는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관에 대한 의구심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대인처럼 계산이 빠르고 재산 축적에 능통한 그가 과연 국왕의 영국성공회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인지, 혹은 가톨릭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인지”(Thomas 81)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도 연계된다. 로마황제의 런던 대사 유스타스 차푸이스(Eustache Chapuys) 또한 사업과 정치수완이 탁월한 토머스 크롬웰의 실세를 체감하면서 울지 추기경을 모셨던 비서이지만 “이교도”(369)라고 규명한다. 그렇다면, “가격만 맞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일 인물이라고 암시하는 토머스 모어는 이미 토머스 크롬웰이 가톨릭과 영국성공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토머스 크롬웰은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기록보관장관에 임명받고서 가장 역동적인 만족을 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 탑이 완성된 것이라고 여긴다. 종교와 상관없이 충성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정보를 가져다주며 헌신하는 자를 승진시키고 보호해주는 인물이라고 나도는 소문을 접하면서 그는 “배푼 은혜와 받은 은혜로 연결된 거대한 망”(584-85)이 자신의 주변에 형성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이 느낌은 국왕 다음 가는 막대한 권력을 쥐고서 “이교도”라고 공격했던 토머스 모어를 “이교도”라는 죄목으로 심문하는 위치에 오른 순간 절정에 달한다. 국왕의 이혼을 반대하고, 국왕이 교회 수장임을 인정하지 않는 토머스 모어가 모든 천사와 성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며 국왕마저도 “이교도”로 몰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토머스 크롬웰은 처음으로 정면공격을 가한다.

“천년이 지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그 분리되지 않은 교회  
 회가 한 것이라고는 그에 속한 구성원이 양심을 지키려할 때 박해하고 불태  
 우고 갈가리 난도질하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개에게 던져주는 일밖  
 에 더 있었소? 당신은 역사를 소환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지만, 당신에게  
 역사가 대체 뭐가요? 토머스 모어를 돋보이게 하는 거울이겠죠. 하지만 내겐  
 다른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에는 자만심으로 가득한 위험한 인물이 보이네  
 요. 그것을 다시 뒤집으면 이번에는 살인자가 보여요. 왜냐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당신과는 달리  
 순교자의 큰 기쁨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고통만 받을 것이거든요.”

“A lie is no less a lie because it is a thousand years old. Your undivided  
 church has liked nothing better than persecuting its own members, burning  
 them and hacking them apart when they stood by their own conscience,  
 slashing their bellies open and feeding their guts to dogs. You call history to  
 your aid, but what is history to you? It is a mirror that flatters Thomas More.  
 But I have another mirror, I hold it up and it shows a vain and dangerous  
 man, and when I turn it about it shows a killer, for you will drag down with  
 you God knows how many, who will only have the suffering, and not your  
 martyr’s gratification. (566) [9pt. 여백: 왼쪽:20, 오른쪽:20]

여기서 토머스 크롬웰은 토머스 모어가 가톨릭을 위해 처형한 인물들의 죽음은  
 온당치 않으며, “이교도”라는 죄목으로 박해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에 대  
 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말에 그  
 는 토머스 모어가 “자만심으로 가득한 살인자”라고 외친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  
 는데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토머스 모어가 주장하는 순  
 간에 이르러서는, 처형당한 인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던 토머스 크롬웰은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을 보인다. 이어 그는 토머스 모어가 배인햄의 재산을 몰수하고  
 고문한 것과 부인을 감옥에 보낸 것,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 사슬로 기둥에 묶어  
 놓고 다시 일주일동안 매질과 폭력을 가한 것, 그것도 모자라 런던탑으로 보내  
 다시 고문한 것, 그래서 결국 배인햄의 몸이 너무 망가져서 화형에 처하기 위해  
 스미스필드로 데려갈 때에는 의자에 앉혀서 데려간 사건을 나열한다(629).



그럼에도 토머스 크롬웰은 토머스 모어가 처형만은 면하기를 바라는 “양가적”(Snow 26) 입장을 내비친다. 토머스 크롬웰은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은연중에 토머스 모어에게 동정심을 품고서 처형을 고민한다. 심지어 토머스 모어에게 국왕이 매정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지도 모르니 국왕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하라고 설득하려 한다. 여기서 “토머스 모어가 참수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634)는 토머스 크롬웰의 고백 이면에는 한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자신을 타락시킨 것 같다”고 보는 것과 연관된다. 또, 국왕 다음의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가 자신의 주변은 “고통과 치욕의 장면들, 무지, 생각 없는 악덕, 빈곤, 희망의 부재”(635)뿐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그에게 가톨릭도 또한 영국성공회도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그는 국왕에게 토머스 모어의 선처를 호소했다가, “쉬운 일이나 처리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줄 아는가? 나는 이 왕국의 역사를 통틀어 자네 같은 출신의 어느 누구도 앉아 보지 못한 자리에 자네를 앉혔네. 그게 그대가 잘 생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보게 난 자네가 자루에 가득 든 뱀처럼 교활하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것이라네”(631)라는 호통만 듣게 된다. 그는 앤 불린과의 혼인, 국왕의 수장령, 심지어 왕위계승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국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한다. 국왕의 눈에 자신은 국정을 담당할 장관이 아니라 여전히 대장장이 아들로 비칠 뿐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황과 수도원과 수도사의 부패와 타락을 등에 업고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재단사 집안 출신”(591)의 토머스 모어의 순교 또한 헛된 죽음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처형 전날 토머스 크롬웰은 토머스 모어가 오래 전 소명을 추구하며 머물렀던 런던의 카르투지오회 수도원(Charterhouse) 소속의 수도사 네 명이 처형당한 것을 토머스 모어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임을 상기시킨다. 수도사들은 국왕의 수장령에 반대하며 “성스런 죽음”(623)을 맞이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동료의 내장이 들어내어 화롯불에 태워지는 고통과 분노와 치욕감을 맛보게 하는 죽음을 맞이하자 사형집행인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동료는 핏물이 고인 단상 위를 짐승처럼 기어 다닌 상황을 상세하게 들려준다. 토머스 크롬웰

이 처형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한 의도는 토머스 모어가 모시는 “신이 부제한 세상”(Green 31)임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신을 위해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이니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국왕의 선처에 호소하라고 청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토머스 모어는 자신의 양심이 로마 교회와 합치되는 지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위안이자 안내자”(633)임을 알기에 많은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고통이 두렵지 않느냐는 토머스 크롬웰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신이 어떻게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면에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내게 잘 해주셨고 날 시험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어요.”

“It is not so important, what happens to the body. I have led in some ways a blessed life. God has been good and not tested me. Now he does I cannot fail him. (634)

토머스 크롬웰은 육신의 중요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토머스 모어의 말을 들으면서 토머스 모어가 처형한 무수한 사제와 수도사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육신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몸을 고문하고, 불태우고, 난도질해서 내장을 꺼내 개에게 먹이는 고통을 가한 것인가 하고 생각한 까닭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겠다”는 토머스 모어의 “광신자적 이기심”(McCrum) 때문에 앞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처형당해야 하는 것과 그러한 처형을 자신이 주관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머스 크롬웰은 “내가 국왕이라면 당신을 끝까지 살게 해주었을 거요. 당신이 저지른 잔혹한 참살(butcheries)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말이죠(636)”라고 일침을 가한다.

하지만 토머스 모어는 처형이 임박해 오자 토머스 크롬웰에게 “사람의 배를 가르면 엄청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죽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겠죠. . . . 살아있는 사람의 척수를 자를 때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라도 있나요?”(637)라고 질문하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그는 감방에 놓인 탁자를

내리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하며 울기까지 한다. “너무 두려워서 마음속으로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는 토머스 모어에게 토머스 크롬웰은 자신은 처형을 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국왕의 수장령에 서약하고 세상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감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햇살이 반짝이고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국가에서 살았다라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 것”(635)이라는 의미심장한 뉘트리를 덧붙이기까지 한다. 비록 국왕과 국왕의 수장령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그는 가톨릭이나 영국성공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바램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 IV. 나가며: 맨틀의 글쓰기와 종교관

『울프 홀』의 서술자 토머스 크롬웰의 탄생 배경은 “가족의 이름을 나열하고 자신이 아끼는 소유물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1520년대의 토머스 크롬웰의 유서”(로시터 246)를 조사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맨틀은 언급한다. 『울프 홀』에서 이 자료는 토머스 크롬웰이 울지 추기경이 몰락할 무렵 가족 모두에게 재산 목록을 할당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의 유서의 마무리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29년 7월: 런던의 토머스 크롬웰, 젠틀맨. [. . .] 시종들에게 돈을 지불한다. 가난한 미혼여성이 결혼할 때 사십 파운드를 나누어 각 마흔 명에게 지급한다. 도로 보수에 이십 파운드를 기부한다. 런던의 감옥에 수감된 가난한 죄수들에게 음식 제공하는데 십 파운드를 기부한다. [. . .] 내 영혼은 신께 바친다.

July 1529: Thomas Cromwell of London, gentleman. [. . .] Money to his servants. Forty pounds to be divided between forty poor maidens on their marriage. Twenty pounds for mending the roads. Ten pounds towards feeding poor prisoners in the London gaols. [. . .] To God his soul. (148)

이러한 유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토머스 크롬웰은 미천하고 가난한 자와 신분을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시종이나 여성, 심지어 죄수까지도 품을 줄 아는 인정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인물이다. 여기서 토머스 크롬웰은, 맨틀이 밝히듯이, 그에 관한 여러 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틀이 미흡한 “틈을 메워 새로운 인물”(Gardiner 56)로 창조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토머스 크롬웰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인자하고 친절한 인간적인 인물을 창조하고자 한 맨틀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인물이다.

토머스 크롬웰이 베푸는 친절과 자비는 어려서부터 아들이나 다름없이 같이 살면서 정치 수업을 위해 서기로 고용한 레이프 새들러(Rafe Sadler)와 미망인 헬렌 바르의 결혼을 지원하고 축하하는 것에서 극대화된다. 그는 신분 차이가 나고 두 딸이 딸려 있는 헬렌 바르와 건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진 레이프 새들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실감한다”(572)고 말하는 진심을 받아들인다. 레이프 새들러가 궁정을 드나들고 정치 업무를 배우는데 몰입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을 누릴 줄 아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는 신분상승에 걸맞게 살아갈 집과 돈을 마련해주며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날 기대에 부풀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650)라는 레이프 새들러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울프 홀』에서 레이프 새들러와 헬렌 바르의 가장 이상적인 결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토머스 크롬웰은 맨틀의 어린 시절에 부재했던 아버지를 대체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맨틀은 또한 토머스 크롬웰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울지 추기경의 몰락을 주도한 귀족들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그의 “개인적인 측면”(LaCroix 76)에서 야기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추기경님이 부탁한 일을 하느라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런던에서 내 일에만 매달렸다면 부자가 되고 정치에는 휘말리지 않았을 것”(156)이라는 토머스 크롬웰의 한탄은 그의 복수가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LaCroix 83)에서 시작한 것임을 보여준다. 가톨릭을 고수하는 토머스 모어의 재판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토머스 크롬웰은 “신이 부재한 세상”을 토로하며 가톨릭과 영국성공회를 초월한

“보다 나은 세상”(635)을 만들 수 있기를 설파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신께 바친다”라고 하는 유서에서 그가 언급한 신은 튜더왕조 시대의 종파를 초월하는 자신만의 신으로, 다시 말해 맨틀의 개인적인 종교관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건국대학교>

### Works Cited

- Funk, Wolfgang. “Becoming Ghost: Spectral Realism in Hilary Mantel’s Fiction.” *Hilary Mantel: Contemporary Critical Perspectives*. Ed. Eileen Pollard and Ginette Carpenter. London: Bloomsbury, 2018. 87-100. Print.
- Gardiner, Juliet. “The Past in Print, Sound and Vision.” *History Today* 59.10 (2009): 54-56. Print.
- Green, Dominic. “Wolves Hall.” *The New Criterion* 33.9 (2015): 25-32. Print.
- 하운숙. 「세상의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울프 홀』. 서울: 사피엔스21, 2010. 613-17.
- [Ha, Yoon-suk. “From the Bottom to the Top.” *Wolf Hall*. Seoul: Sapiens21, 2010. 613-17. Print.]
-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Oxford: Oxford UP, 2012. Print.
- 김선형. 「시체들을 끌어내 참수형에 처하다」. 『튜더스, 앤 불린의 몰락』. 서울: 북플라자, 2015. 536-38.
- [Kim, Seong-hyeong. “Bring Up the Bodies and Execute Them.” *Bring Up the Bodies*. Seoul: Book-plaza, 2015. 536-38. Print.]
- Knox, Sara L. “Giving Flesh to the ‘Wraiths of Violence: Super-realism in the Fiction of Hilary Mantel.” *Australian Feminist Studies* 25.65 (2010): 313-23. Print.
- LaCroix, Alison L. “A Man for All Treasons: Crimes by and against the Tudor State in the Novels of Hilary Mantel.” *Fatal Fictions: Crime and Investigation in Law and Literature*. Ed. Alison L. LaCroix, Richard H. McAdams, and Martha C. Nussbaum. Oxford: Oxford UP, 2017. 65-88. Print.

- Lodge, David. "Little Miss Neverwell Triumphs." *Commonweal* 131.19 (2004): 42-44. Print.
- MacFarquhar, Larissa. "The Dead are Real: Profiles." *The New Yorker* 88.32. 15 Oct, 2012. n/a. Web. [웹사이트인용표기]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2/10/15/the-dead-are-real>>.
- Mantel, Hilary. *Bring Up the Bodies*. London: Fourth Estate, 2015. Print.
- \_\_\_\_\_. "Sanity, Madness and the Family." *Existential Analysis* 26.1 (2015): 25-35. Print.
- \_\_\_\_\_. *Wolf Hall*. London: Fourth Estate, 2015. Print. 2010.
- Mccrum, Robert. "Novel Royale: Hilary Mantel Returns to Henry VIII's Bloody Court." *Newsweek* 159.20. 14 May, 2012. Web.  
<<https://www.questia.com/magazine/1G1-289095194/novel-royale>>.
- 박선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소설과 영화에 재현된 다종교」. 『문학과 종교』 22.1 (2017): 83-109.
- [Park, Sun-hwa. "Religious Pluralism in Life of Pi and Its Film Adaptation." *Literature and Religion* 22.1 (2017): 83-109. Print.]
- \_\_\_\_\_. 「윌리엄 제임스의 성인다움과 개인의 체험적 신앙: 그레엄 그린의 『권력과 영광』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23.4 (2018): 31-53.
- [\_\_\_\_\_. "William James's Saintless and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Graham Greene's *The Power and the Glory*." *Literature and Religion* 23.4 (2018): 31-53. Print.]
- Richard, Hodson. "'He, Comwell ...': Pronouns in Hilary Mantel's *Wolf Hall*." *English Literature Research* 60 (2019): 21-42. Print.
- 로시터, 토니.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글쓰기 비법』. 방진이 옮김. 서울: 북멘토, 2018.
- [Rossiter, Tony. *How to Write Like a Bestselling Author*. Seoul: Bookmento, 2018. Print.]
- Snow, Patricia. "The Devil and Hilary Mantel." *First Things* 270 (2017): 25-31. Print.
- Thomas, Alfred. "Cromwell the Humanitarian." *Commonweal* 143.10 (2016): 27-28. Print.
- Todd, Richard. *Consuming Fictions: The Booker Prize and Fiction in Britain Today*. London: Bloomsbury, 1996. Print.

## 힐러리 맨틀의 『울프 홀』에 나타난 튜더왕조 시대의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관

국문초록

박선화

이 논문에서는 2009년 부커상 수상작인 힐러리 맨틀의 『울프 홀』에 재현된 영국성공회 형성 과정을 고찰하면서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관을 다루고자 한다. 『울프 홀』에서 맨틀의 크롬웰은 튜더왕조의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혼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톨릭교회에서 분리하는 영국성공회 형성과 수장령 선포의 교회법 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맨틀의 크롬웰은 탁월하고 결단력을 갖춘 정치가로서 헨리 8세의 자문관, 기록보관장관, 심지어 헨리 8세가 부여한 성직관리관으로 임명되는 신분상승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혁명과 종교적 개혁이 잉글랜드의 튜더왕조를 위한 대의명분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맨틀의 크롬웰은 가톨릭과 영국성공회에 구속받지 않는, 즉 자신만의 신을 따르는 종교적 인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

**주제어** [영문초록 주제어와 일치, 5개]

힐러리 맨틀, 『울프 홀』, 영국성공회, 토머스 크롬웰, 종교적 경험

Manuscript Peer-Review Process

Receipt Acknowledged: Aug. 01, 2020

Revision Received: Sep. 10, 2020

Publication Approved: Sep. 25, 2020